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목 차

여는 글	3
사업 소개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8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26
충남 홍성 작은도서관모임	32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	40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	48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54
서천 여우네도서관 외	6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70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80
설문조사 결과 분석	90

여는 글

2021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작은도서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지속, 점점 어려워지는 운영환경 속에서 굳게 마음먹고, 비장하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역사 이래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수가 줄어든 최초의 시점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힘,
2021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도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 '공부와 연대'였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작은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보내주신 신청서에는 작은도서관 현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충청,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10개의 단위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들며 함께 모여 공부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모인만큼 열정도 뜨거웠고, 공부의 깊이와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마치며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힘은 뭐니뭐니해도 '함께하는 공부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만들어가는 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고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을 마련해준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감사드립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와 함께한 전국의 작은도서관 도반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고민이 생겨남을 봅니다. 협회도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담았습니다.

자료집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은도서관 현장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함께 공부합시다.

2021. 1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 사업 소개

1. 새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Child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도서관 회원과 개인회원, 자료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지부(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울산경주, 강원, 충청, 대구, 경상, 광주, 호남)가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 99곳, 협의회 7개(249곳), 개인회원 9명, 총 115개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 중앙에는 사무국,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를 두고 이사장, 상임이사, 4명의 간사가 활동하며 각 지부 및 회원도서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



-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은 물론, 특정 주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사업을 기획, 추진, 지원합니다.
-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온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며 기금의 운영과 집행을 위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 사업 추진 목적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 스스로 교육을 기획, 진행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 교육내용과 결과를 일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교육과정과 변화를 알려 작은도서관을 알린다.
-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될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전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

3. 사업 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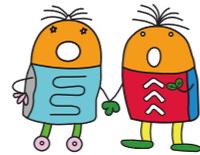
4. 사업 추진 내용

- 각 선정 단위별 총 2,000,000원~2,500,000원 예산 지원
- 활동 방향 및 문제점 해결 위하여 실사 및 컨설팅 진행

5. 선정 단위 소개

번호	지역	단 위 명
1	서울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2	충청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3	대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4	충청	충남 홍성 작은도서관모임
5	서울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
6	경기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
7	경기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8	충청	서천 여우네도서관 외
9	인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10	전국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6. 사업 추진 일정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1. 소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는 25개 도서관(협의회 2, 개인회원 2)이 함께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2016년부터 권역지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지부장과 동, 서, 남, 북, 중앙 권역으로 나누어서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권역지기들 6인이 기획하여 신청하였다. 서울지부는 2016년 포럼 이후 꾸준히 작은도서관 책 활동을 공유해 온 것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꽃, 인력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작은도서관 인력의 현실을 함께 나누었다. 2017년에는 '작은도서관의 꽃, 책'을 주제로 책의 선정과 전시, 배가, 독서활동을 회원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이용자와 함께 책을 읽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과 책, 2018'을 주제로 2017년 포럼 이후에 각 도서관에서 활동한 사례를 나누며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활동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도서관에서 계속 이어가는 힘을 얻는 자리를 만들었다. 2018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그림책 깊이 읽기>를 실시하여 서울지부 회원들이 그림책을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을 겸비하여 깊고 넓게 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후속 모임으로 <그림책 유랑단>을 결성하였다.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기록'을 주제로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었고, 구로기적의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있다, 서울 2019' 전시회를 열었다. 2020년에는 '작은도서관 비대면 시대를 살다-코로나 싸늘이' 강좌를 서울지부 스스로 기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비대면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부 소속 도서관들은 꾸준히 포럼, 스스로 아카데미 등을 통해 회원들 역량을 강화해 온

것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과정을 열었다.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기획했다.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 자아 존중감 회복,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동가들에게 나를 단단히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디딤돌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글쓰기 길 안내는 이문재 선생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시인, 기적의 협동조합 이사)과 박현희 선생님(사단법인 공감인 이사, 치유활동가, 글쓰기, 그림책 강사, 기적의 협동조합 이사)이 함께 해주셨다.

- 대상 : 서울지부 작은도서관 활동가 20명 신청
- 방법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 기간 : 시즌1 ▶ 2021. 6. 3(목)~7/15(목)
매주 / 7회 / 지원
- 시즌2 ▶ 2021. 7. 29(목)~11/19(목)
격주 / 9회 / 자부담
- 무엇을 : 매주(격주) 주제에 맞는 글을
A4 한 장, 5단락 글쓰기

차시	주제	진행방식	강사	강사소개
1	왜 나를 위한 글쓰기인가	강의	이문재	이문재
2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글쓰기	박현희	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기적의 협동조합 이사
3	잊을 수 없는 장소	글쓰기	박현희	
4	잊을 수 없는 법상	글쓰기	박현희	
5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글쓰기	박현희	박현희
6	내가 살고 싶은 집	글쓰기	박현희	사단법인 공감인 이사 치유활동가
7	글쓰는 삶	강의	박현희	글쓰기, 그림책 강사 기적의 협동조합 이사

9월 중 발간기념회

▲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모집 웹자본

일정과 내용

구분	일정	글쓰기 주제	구분	일정	글쓰기 주제
시즌 1	6/3(목)	왜 나를 위한 글쓰기인가	시즌 2	7/29(목)	잊을 수 없는 노래
	6/10(목)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		8/12(목)	잊을 수 없는 선물
	6/17(목)	잊을 수 없는 장소		8/26(목)	나를 움직인 한마디
	6/24(목)	잊을 수 없는 밥상		9/9(목)	나의 장점
	7/1(목)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9/30(목)	지금 나의 고민은+자유주제
	7/8(목)	내가 살고 싶은 집		10/14(목)	내가 하는 일
	7/15(목)	글 쓰는 삶		10/28(목)	인터뷰
			11/11(목)	글쓰기를 하며 내게 생긴 변화	
			11/18(목)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낭송회·출판기념회	

글쓰기 과정은 매주(격주) 주제에 맞는 글을 써서,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다. 함께하는 이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ZOOM에서 만나서 박현희 선생님의 합평을 듣고, 다시 고쳐쓰기를 했다. 이런 과정을 15회 진행했다.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7회까지 하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글쓰기 공부를 시작한 활동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글쓰기 모임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7월 15일까지 지원금으로 진행했고, 시즌2부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강사비를 N분의 1을 해서 각자 조금씩 부담했다.



글쓰기 시간

글쓰기 하면 부담스럽고 두렵고 자신감 없는 사람부터 이번 기회로 작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쌓아가겠다는 사람 등 글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다.

1강은 이문재 선생님이 글쓰기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글쓰기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글쓰기는 자기의 감정, 경험, 생각,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성찰의 재탄생이라고 했다. 기적의 글쓰기는 자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한 편의 에세이로 재구성하는 것인데,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내가 새로워진다고 했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메모하고, 개요 짜고, 글을 쓰고, 내가 쓴 글 소리내어 세 번 이상 읽고, 글 고치기를 하라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2강부터 15강까지는 박현희 선생님이 우리가 쓴 글을 합평해주고, 글쓰기의 팁을 알려주었다.

▶ 합평에 대하여

합평을 받아들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쓴 글에 대해 지적받으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맘이 상할 수 있지만, 지적을 받아들여 자신이 쓴 글을 고쳐 다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글쓰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 합평은 글에 대한 지적일뿐 인격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 글을 잘 쓰려면 이런 부분을 주의해 보자

- 글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개요를 짜고, 단순하게 쓴다. 그리고 3번 이상 소리 내어 읽어보고 여러 번 고쳐 쓴다.
- 문장을 짧게 써라.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기 어려워지고, 비문이 많아지게 된다.
- 시제를 통일해서 쓴다. 회상하는 글을 주로 썼으므로 과거의 단순 시제로 글을 쓴다.
- 글을 구체적으로 쓴다. 글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해주는 것이 독자에게 전달이 쉽게 된다.
- 글의 요소는 명확한 문장, 자연스러운 전개, 새롭게 느껴지는 의미가 있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글쓰기가 된다.
-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 생각을 끌어내는 마중 글은 글을 쓰고 난 후 그 단락은 지워도 된다.
- 중복된 표현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은 다른 문장으로 바꾸거나 생략해 준다.
- 긴 글에 대한 훈련을 위해 줄 바꿈은 내용이 바뀔 때 해주고, 단락 중심으로 글을 쓴다.
- 글 쓰는 것은 똥 누는 것과 같다. 감정들을 배설하는 것이다. 휴지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는 날은 별로 없다. 삼십개 정도 글을 쓰면 그중 세 개 정도 마음에 든다. 잘 하려는 마음이 아닌 매일매일 똥 누는 심정으로 글을 써야 한다. '잘 써야지 좋은 글 써야지'는 그림의 떡이다.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 가상의 독자 한 명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라. 즉 그 독자에게 내 얘기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라.
- 제목과 첫 문장이 중요하다. 세 문장 정도 읽고 더 읽을지 말지 생각을 하므로 제목과 첫 문장이 중요하다.
- 좋은 작가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 묘사가 실감나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 개념적인 글쓰기보다는 감각을 활용한 글쓰기를 해보라.
- 내 글은 못 써 뵈고 남의 글이 좋아 보이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삼십 개 써서 세 개 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써야 한다.
- 혼자 글을 쓰는 것보다 공유하고 나누었을 때 감정이 다 풀리는 것이다. 본인 삶의 입장을 풀여가는 것이 글쓰기다.
- 글은 용감한 사람이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억지로 쓸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접지 않으면 된다. 나한테 의미 있던 순간, 기억해 두고 싶었던 순간 등을 멈추지 말고 쓰라. 내 삶을 새롭게 갈무리해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써 보라. 그런 글 쓰는 습관을 들여 보라.
- 글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조별 모임을 해서 글을 계속 쓰기를 추천한다. 글벗은 삶을 나누는 벗이다.

▶ 글 고치는 팁

-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잘 들어가 있나를 확인하고 내용이 빠졌거나 뺄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 글의 전체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단락의 순서를 바꿀 것은 없는지 전체 구조를 점검한다.
- 잘못된 문장, 비문, 주술호응 등을 확인하고 긴 문장은 짧게 쓰거나 나누어 쓴다.

- 잘못된 어휘,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읽는 사람에 따라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쉽게 풀어 쓴다.
- 글 수정한 후 반드시 출력하여 읽어보고 글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지를 확인한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풀어서 쉽게 쓴다. 출력물을 읽을 때 특히 반복어를 점검하고 문장배열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본다.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낭송회 · 출판기념회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과정 중 시즌1에서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발간했다. 총 17명의 75편의 글이 실린 269쪽 책으로 만들어졌다. 열다섯번의 글쓰기 과정이 모두 zoom으로 진행되었고, 낭송회·출판기념회는 대면 모임으로 진행했다. 대면으로 12명, 비대면으로 5명이 참여하여 본인이 쓴 글을 낭송하고 글을 썼던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았다. 이미 한 번씩은 읽어서 또는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도 다시 낭송해서 들으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처음으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고, 비대면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 진솔한 만남의 자리이고, 위로받는 자리였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만나서 글쓰기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글쓰기 인연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2. 진행 후

서울지부 회원은 25개 도서관인데 그 중 10개 도서관이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에 참여했다. 더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다음에 이들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글쓰기를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해진 활동가들이 각 작은도서관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도서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Q.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한 후 소감 한 마디?

- 시원섭섭하네요. 해보고 싶은 글쓰기를 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함께 한 고마운 인연에 감사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유선화
- 서울지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을 2번 참여했는데 할 때마다 뿌듯함이 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글쓰기 강좌가 넘쳐나서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8 주가 지나면 기적같이 글쓰기 스킬이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글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걱정은 참~ 괜한 기우였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번 글쓰기 과정은 8가지의 주제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작성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애써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주제 안에 내가 드러나면서 저에게는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글을 쓴 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읽었습니다. 애석하게 줌으로만 진행되어 얼굴을 직접 못 보았지만, 웬지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친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어찌 그리 글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미선
-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함께 하는 분들 덕에 마칠 수 있었어요. 이번을 거울삼아 찬찬한 걸음으로 다시 도전해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끌어주신 박현희강사님 매주 문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신 현실샘 감사드려요. 김영애
- 원래 7회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마음이 맞아 16회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글쓰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바쁜 와중에도 글감을 생각하고,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도록 '기적의 글쓰기'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신진희
- 처음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의 글들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며 힘을 얻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뒤에서 힘써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글쓰기를 도와주신 이문재 선생님, 박현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현희 선생님의 합평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김미희

- 더 집중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잊었던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닌 나와 마주 설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용기가 납니다. 이은주
- 아직은 지난 시간과 이별하지 못해 글쓰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처음 듣는 글쓰기 수업이 너무 좋아서 끝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배운 글쓰기로 차차 글쓰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 혼자 하면 엄두가 나지 않을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입니다. 응원합니다! 윤미선
- 일주일 내내 머리 한가득 글감을 찾는 동안 기억 속의 나를 만나고 또 만났다. 흐릿하게 또는 또렷하게 저장된 나를 끊임없이 꺼내 보게 되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기억 넘어 빛나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글감으로 정하고 글을 쓸 공리를 했다. 이렇게 글쓰기는 비로소 나를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송영순
- 잘했다! 칭찬한다! 마감 시간을 놓쳤을지언정 숙제는 빼먹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댓글 보며 힘났다! 다른 이의 글 보며 눈물짓고 숨 깊게 쉬었다! 김화윤
- '스스로 아카데미-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를 시작한 2021년 6월 3일 '왜 나를 위한 글쓰기인가'란 이문재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각자 13편의 글을 써 왔다. 그리고 75편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11월 18일에는 우리만의 출판기념회 겸 낭독회를 가진다. 대학생 1학기 수업처럼 16강을 채운 우리가 드디어 종강하는 셈이다. 함께 한 동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렌다. 따로 긴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는데도 많은 것을 함께한 듯한 이 동지애(同志愛)는 나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김애경



Q.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 글쓰기가 있기에 2021년은 가시적인 수확이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어요. 이어서 또 하고 싶은데 조금 쉬고도 싶어요. 유선화
-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글 평가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비문은 다듬어야 할 숙제로 남았지만, 덕분에 글쓰기의 재미와 개요 짜기,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배웠습니다. 우미선
- 글쓰기는 바빠 살아가는 나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이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0이 되면 글을 쓰며 생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짐에 첫 단추를 끼운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단추는 엇박자로 끼워졌을지라도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긴 여운으로 남는 듯 합니다. 김영애
- 바쁜 일상 속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쓰기가 내에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나 깨닫기도 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진희
- 나의 지난날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짧지만 조금씩 글을 쓰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미희

- 함께하는 것의 힘을 느낍니다. 사실 잘 모르는(?) 우리였는데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그래서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알아가는 우리로. 응원하고 지켜보고 박수 보내는 우리가 된 것 같아요. 일상의 기적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게으른 도반을 언제나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 지난 시간 기쁘고, 슬프고, 행복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고 때론 지친 삶을 다시 힘내서 내일로 향하게 하네요. 이문재 선생님, 박현희 선생님, 김현실 선생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
- 스스로 책 한 권에 이어 함께하는 글쓰기를 참여했더니, 기적의 발자취가 되었네요. 이어지는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윤미선
- 글쓰기 과정은 작아 보였던 성장기의 나도, 우유부단한 지금의 나도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고, 대견한 존재라는 생각을 남이 아닌 내가 발견해 가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마감에 압박해서야 겨우 글 한 편 올리고 탈진한 마음을 아낌없이 긍정 댓글로 충전해주는 동료들과 여럿이 함께 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송영순
- 글감을 찾느라 한참을 되짚어가며 나를 보고 또 보니 자꾸만 아버지가 떠올랐다. 은행 다녔던 아버지는 늘 바쁘고, 늘 술을 드셨고, 늘 잠만 주무셨었는데... 나를 지탱하고 가지 뻔하게 해주는 기둥이, 뿌리가 아파였구나!! 깨닫는다. 김화윤
- 한 편 한 편 글을 쓰고 나누면서, 5편의 글이 9편이 되고 13편이 되었다. 그리고 더욱 의미 있던 것은 책을 만든 것이다. 매주 써 내려간 이야기를 고치고, 다듬어가며,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 269페이지 안에 내가 담겨 있고, 우리가 담겨 있다. 이 한 권의 책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쳐 전쟁 같았던 2021년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 냈는지 보여주는 증거품이다. 김애경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배움과 실천의 '스스로' 아카데미

1. 소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청주시 약 120개관의 작은도서관들 중 현재 51개관의 회원 작은도서관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입니다. 2010년 7월 청원작은도서관협의회 발족과 2011년 1월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2015년 1월 통합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운영조직은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각 분과위원장 5명, 서기 1명, 회계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 배경

협의회 초기에는 '작은도서관 학교'라는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작은도서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그동안 필요했던,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작은도서관들에게 도서관법·미디어·도서관 운영 관련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 및 기존 회원도서관들 간에 마음을 나누며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커리큘럼

회원 작은도서관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5가지 주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i) 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들을 위한 내면의 위로를 주는 강의

▶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웹자보



- ii)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관련 강의
- iii) 너무나 중요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법에 대한 강의
- iv) 그동안 8회에 걸쳐 발간했지만 사전고지 없이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버린 청포도 소식지 등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홍보와 관련한 강의
- v) 예산이 부족해 참석과 추진에 제한이 있던 이웃도서관 견학 따로 일정을 잡는 것은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아,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월례회의 때 30분 가량 빠르게 회의진행을 하고 이후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와 견학 소개

1) 6월 2일 '작은도서관과 책과 사람' 강의(참석인원 : 18명)

어떤 조직과 공동체든 일을 풀어가다 보면 일에 매몰되기 쉽고 일이 많고 잘 한다는 조직일수록 일 중심이 되기 쉬운데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독서의 진정한 의미 역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 읽기를 통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로 모여서 여러 일들을 같이 하며 함께 답을 찾아보자는 강사(전 청도협회장)의 말에 많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도서관은 배제와 따돌림이 아닌 신분, 성별, 종교, 귀천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환영받는 환대와 성장의 공간, 공공성이 피어나야 하는 곳, 낙원과도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와 코로나-19시대의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는 강의였습니다.

2) 7월 7일 '내 도서관 홍보영상 만들기' 이론 강의(참석인원 : 28명)

미디어교육을 받고 싶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아 이론과 실습 총 2회에 걸쳐 미디어 관련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언론사의 기자, 편집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강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전반적인 특징과 내용을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는 강의여서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확장성에서 나오는데 확장성은 공유와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 공유를 유발하는 요소들-재미, 감동, 충격, 유익- 등에 대해 강사가 기자 생활 때 직접 쓴 기사의 제목 등을 예시로 보여주며 강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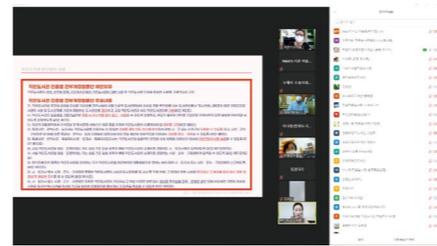
3) 7월 14일 '내 도서관 홍보영상 만들기' 실습 강의(참석인원 : 26명)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언론사의 기술국장을 섭외하여 전반적인 미디어 사용에 관련한 설명과 동영상편집 무료 어플인 키네마스터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노트북과 핸드폰으로 영상을 함께 만들어 보고 모르는 것을 바로 강사에게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장면전환 효과를 넣어 여러 영상을 삽입하고, 폰트·색상 변경도 해보고 오디오로 노래·효과음도 넣어보는 등 각 작은도서관들의 영상도 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채널에도 회원도서관들 일부가 참여하여 만든 청주시 작은도서관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고 이 영상은 청주시 독서대전 유튜브채널에서도 9월~10월 중 상시 상영되었습니다.



4) 8월 4일 '작은도서관 관련법의 이해' 줌 강의(참석인원 : 25명)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섭외하여 현재 작은도서관의 현황,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서관법의 비교,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부분



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교육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9월 1일 '작은도서관의 홍보' 줌 강의(참석인원 : 18명)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그동안 8회에 걸쳐 청포도라는 소식지를 발행해 왔습니다. 인력난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의지로 소중하게 한 호 한 호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올해 사전고지 없이 소식지 보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소중함과 홍보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어 다섯 번째 강의로 청도협홍보편집위원장(전 마을신문 편집장)의 작은도서관의 홍보에 대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과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원고를 잘 보내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목과 사진 설명법, 사진촬영기법과 사진 배치법, 가독성 있는 글쓰기, 책이 나오는 마지막 교정단계와 관련하여 이름과 제목 기재법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6) 10월 29일 이웃도서관 견학(참석인원 : 18명) - 전주시립도서관, 덕진품에 작은도서관

오전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트윈세대들만의 공간인 우주로1216도 견학하였습니다. 트윈세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건축가와 함께 한 워크숍 등을 통해 세대의 성향을 반영해 공간을 나눈 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제 컬렉션·프로그램·재료 등을 구비한 것들에 대해 직접 견학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역할의 확장으로 향후 작은도서관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덕진품에 작은도서관(전주작은도서관연합회회장이 운영)에 들렀는데 덕진청소년

문화의집 내에 위치한 공립형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전주시에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약 25개관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데, 대신 평가에 관한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등 향후 청주시 작은도서관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진행 후

앞으로도 월례회의 시간을 통해 기존 회원들을 위한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과 신규 회원들을 위한 운영 컨설팅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회원 중 다수인 아파트작은도서관들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려 합니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전체적인 참여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낮았고 총 5번의 강의 중 2번을 줌회의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웃도서관견학 때 이동에 있어 차량대여가 어려운 상황 등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부 강사만을 섭외하는 것이 아닌 협의회 내부의 강사님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회의만으로 진행되던 시간에 교육을 함께 하니 회원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동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홍승표 전 청도협회장님의 한줄 소감과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의 의미-

오랜만에 우리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아카데미를 할 수 있었기에 보람차고 뜻깊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이 지금껏 쌓아온 역량과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배움과 실천을 통해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자율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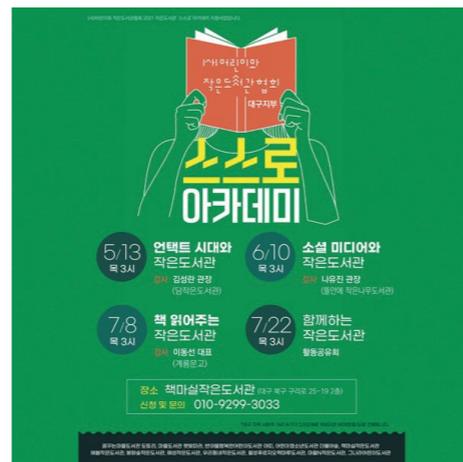
1. 소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에는 10여년 세월 지역 풀뿌리 도서관 운동을 이어가는 도서관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도서관들이 어우러져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운영에 위기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 이전 함께 만나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아우 도서관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은 생각 이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였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계획하면서는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임에도 도서관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협회 소속 도서관 관장 두 분과 오랜 시간 지역 서점을 운영하며 책 읽어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강사를 모시고 도서관 안과 밖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지역에서 꾸준히 각자의 색깔을 담아내며 성장하는 비회원 도서관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회원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와 작은도서관

(재)도서문화재단씨앗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10여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춘천시에서 기부 체납하여 춘천시립도서관 분관이 되고,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 담작은도서관은 그 시점에 코로나를 만났다. 그 시간과 함께 준비한 두 번째 시즌 이야기를 김성란 관장께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재정비하여 새롭게 운영을 준비하던 담작은도서관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본능적으로 ‘예전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새롭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시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휴관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했다고 한다.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는 인형인 책 친구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줄 수 있도록, 인형과 그림책 2권을 패키지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손바느질로 형질 인형을 만드는데 참여했다고 한다.

〈엄급십대〉, 〈이슈book+ing 챌린지〉 등 청소년부터 성인 이용자까지 언택트 시대임에도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가족과 유튜브로 즐기는 집콕 놀이〉는 펜데믹 시대에 발 빠르게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책 읽기와 문화 예술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시의적절 하게 잘 진행하였고,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아카데미 이후 협회 소속 전국 다양한 작은도서관들과 연계하여 진행되어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도서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나라이린이도서관도 덕분에 이용자와 즐거운 집콕 놀이를 할 수 있었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이라 담작은도서관의 넉넉한 배려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부 새내기 도서관이 예성작은도서관 박민선 관장은 줌으로 진행 된 품평회 때 “도서관의 규모는 다르지만, 담작은도서관의 사례와 열정에 힌트를 얻어서 실제 도서관 운영에 접목하는 시도를 한 프로그램도 있다.”라며 흡족해 하였다.

소셜미디어와 작은도서관

2013년 개관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걸 하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도서관을 운영해 오는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이하 뜰작) 나유진 관장이 이야기를 들었다. 1회차 주제와 다소 차별성이 없이 정하여 내심 준비하는 입장에서 걱정도 많았는데, 직접 고민하고 경험한 이야기는 역시 힘이 있었다. 원치 않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웃과 연결하기를 고민한 뜰작은 〈책 읽어주

는 동네 이웃>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밴드에 이용자들이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지역 식당 식사권 등을 선물하는 등 꾸준히 참여를 독려했고, 이후 이런 노력은 유튜브에서 플작 TV를 진행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공간을 한 가족에게 3-4시간을 오롯이 대관을 한다 던지, ‘한줄 댓글, 한줄 읽기’, ‘함께 이어 만드는 이야기 책’, ‘플작 온라인 백일장 3행시 짓기’ 등을 운영 중인 도서관 밴드에서 시행하며 물리적으로 거리를 뒤편만 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연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운영자가 활용하기 편한 다양하고 참신한 플랫폼으로 미디어(영상, 카드뉴스 등)를 생산하고, 적절하게 이용자들에게 발신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두 시간여 강의를 듣는 중에 잘 느낄 수 있었다. 끊임없이 이웃들과 소통하며 공간을 만들어 내고, 책을 읽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플작과 나유진 관장의 지난 시간의 수고들이 눈에 그려졌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 이번 강의를 듣고 실시한 도서관이 생겼고, 필자가 봉사하는 그나라어린이도서관의 밴드도 해시태그로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더 편하게 활용하는 채널이 되고 있다.

책 읽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 코로나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 했을 때 결국 책을 읽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법이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순 있겠지만 책을 읽는 행위가 없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지역 서점을 오랜 시간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연령의 독자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대전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를 초청하였다.

역시 오랜 시간 책 읽어 주는 아저씨답게 그림책 한 권 한 권을 직접 읽어 주며 이야기를 풀어 주셨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 주었으면 때론 본문을 통채로 외워서 듣는 사람과 눈높이와 호흡



을 맞춰서 책을 읽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빨간색 돋보기 안경을 살짝 내려 쓰고 책을 읽는 모습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금세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며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을 읽어주는 사이사이에 시대의 교육현실을 꼬집고, 책을 사지도 읽지도 않는 현실과 그림에도 빛을 저가며 사명감으로 서점을 운영하는 이야기에 어려운 상황에 작은도서관을 묵묵히 운영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 활동가들의 모습과 교차하며 숙연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또 재미있는 그림책을 한권씩 소개 할 때 먼 앞줄에 나란히 앉았던 그나라어린이도서관 활동가들은 웃느라 강의 내용을 하나도 메모하지 못했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도서관 활동가로 살아오신 분들께는 너무 싱거운(당연한 이야기) 수업인줄 모르겠으나, 도서관을 운영한답시고 정작 어린이들에게 책 한권 제대로 읽어주지 못한 모습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대구에 300여개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손에 꼽히는 정도이다. 그래서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협회 뿐 아니라 성실하게 각자의 색깔대로 운영 중인 도서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4개 도서관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협회 소속 도서관인 책마실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주)ODS의 부설인 저스트프렌즈 작은도서관, 대구 아파트 작은도서관들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책마루도서관



그리고 김천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을N작은도서관까지 개성 있는 도서관 운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듣는 시간은 오랜 시간 도서관 활동가로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활동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2. 진행 후

어려운 시기에 네 번의 만남과 강의, 이후 지부 회의를 겸한 품평회까지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그러나 침 튀겨가며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점은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부 도서관들과 이웃 도서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든 도서관들이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





함께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1. 소개

운영기관	대표	운영형태	소재지
계	4개소		
한울작은도서관	김석환	공립	홍북읍 홍예로 213
다올책사랑방	김은정	사립	홍북읍 청사로48번길 16-1
이음작은도서관	김은미	사립	홍북읍 신대로 33
우아영작은도서관	김민정	사립	홍성읍 아문길29번길 66-14

한울작은도서관 : 한울작은도서관은 내포신도시LH스타힐스 아파트 내에 위치한 전국최초 아동통합지원센터에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다올책사랑방작은도서관 :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이 많으신 김은정 관장님의 헌신적인 책 사랑으로 세계 우수 그림책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올책사랑방” 을 검색해보세요~)

이음작은도서관 : 홍북읍 마을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방과 후 아동지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재주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아영작은도서관 :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지역사회 어린이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아영교육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교육내용

작은도서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해야 할 것인가? 경험많은 선배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한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내에서만 들으려고 했으나 지역 내 운영자분들께 오픈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홍성군 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선생님들 중 원하시는 경우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10개소)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과정명	강좌내용
함께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조직사례 -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모집/조직/운영관리 - 모금과 기부로 자립하는 작은도서관 - 공모사업 A to Z
작은도서관 정체성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공간구성과 활용 - 사례중심 독서문화프로그램 - 사례중심 독서동아리 운영의 실제

날짜와 일정을 조율하여 10월 29일까지 교육 일정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견학을 가려고 하였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2021.4.9(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조직사례 (역할분담모형) -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
2021.5.7(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모집/조직/운영관리 - (슬슬 이수연 활동가)
2021.6.4(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과 기부로 자립하는 작은도서관 -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님)
2021.7.2(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A to Z - (책놀이터 박미숙 관장님)
2021.8.6(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성과 활용 - (책놀이터 박미숙 관장님)
2021.9.3(금)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중심 독서문화프로그램 - (웃는책 김자영 관장님)

일 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2021.10.1(금)	2시간	- 사례중심 독서동아리 운영의 실제 - (웃는책 김자영 관장님)
2021.10.29(금)	2시간	- (평가모임) 피드백, 질의응답 - 견학을 가려했으나 코로나로 취소! - 컬러테일러 방에스더 대표님의 색조합 원리 교육

2. 진행 후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서로 잘 몰랐던 작은도서관 선생님들끼리 알게 되고 연결되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작은도서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조직사례

-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지, 민간조직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사례, 생활문화 만들기, 지역내의 기관, 단체와 교류 협력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모집/조직/운영관리

- 도서관협동조합 슬슬 이수연 활동가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인 자원활동가 모집 운영 조직 관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3. 모금과 기부로 자립하는 작은도서관

-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님과 함께 작은도서관 기부캠페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부자에게 의미있는 일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 매우 인상깊었으며, 타 도서관의 기부모금 사례, 해외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셨습니다.

4. 공모사업 A to Z

책놀이터 박미숙 관장님과 함께 공모신청서 쓰는 법, 공모 신청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점, 계획과 기획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 사업의 목적과 핵심가치를 어떻게 답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5. 작은도서관 공간구성 사례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자영 관장님과 함께 작은도서관 공간구성 사례를 살펴보고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공간 활용방법사례를 알아보고 도서관에 적용해보기도 하였습니다.

6. 사례 중심 독서문화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자영 관장님의 다양한 책문화 프로그램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프로그램 참여자로만 남지 않고 지속적인 이용자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사례중심 독서동아리 운영의 실제

독서동아리의 의미와 독서동아리의 형태와 역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 평가모임, 작은도서관 색조합 원리

작은도서관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해드렸으며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컬러테일러 방에스더 대표님의 강의로 색조합 원리를 배워보고 그동안 남을 바라보고 봉사하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 우리 도서관 상황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영작은도서관 남원주
- 좋은 교육 잘듣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작은도서관 이혜성
- 현실과 이상의 조화로움.. 정말 힘든 과정의 나날이지만! 작은도서관이 사회곳곳의 틈 사이를 메우고 있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책사랑방작은도서관 김은정
- 기부를 생각하면 먼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강의와 사례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포마을도서관 조성용
- 학습은 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게 과제로 남았네요. 다음책사랑방 김은정
-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작은도서관 김명희
-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강의들이 다 너무 도움되고 좋아서 한번들은 이후로는 안들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기획이 훌륭합니다. 우리함께작은도서관 김선희
- 매번 강의를 기대됩니다. 유아영작은도서관 황선애
-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내포뉴스작은도서관 장현숙
- 매우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롯데캐슬작은도서관 김정희
- 도서관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강의였으며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강의였습니다. 한울작은도서관 하미경
-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문화공간이고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울작은도서관 최수현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은평
작은도서관
사람들**



문학, 그림책으로 만나다

1. 소개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은?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이후 은작사)은 은평구에 소재한 16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 및 기관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 및 지원, 협력을 기반으로 도서관 서비스 및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도 쉽게 은평구 작은도서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djkkumnamulib>) 운영을 통해 은평구에 있는 70여 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위치와 운영 정보뿐 아니라 지역의 정보, 도서관 정보, 프로그램 등을 온·오프로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은작사는 그루티기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녹번만화도서관, 다니엘작은도서관,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매바위북카페작은도서관, 물빛마을 작은도서관, 물빛캐슬작은도서관, 불광천작은도서관, 예뜰작은도서관, 은평노인복지관, 정임작은도서관, BOOKBRIDGE 작은도서관, 솔솔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동네북,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은평지회, 파침도서관, 푸른풀밭작은도서관(18개 기관)이 함께 합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 배경

2020년 서울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시-자치구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개 작은도서관이 모여 주민과 함께 진행하면서 은평구 공·사립작은도서관들의 열악한 운영 현황과 고민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 간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를 발족하여 2021년 1월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6개 작은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8개의 도서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도서관 운영자가 1명인 경우가 많아 대면보다는 비대면 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과 콘텐츠, 인력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책을 연계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므로 작은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리큘럼

일시	내용	강사	비고
5/6(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느끼고(1) 2. 형식: 강좌 + 체험 3. 강의 내용: 말놀이의 세계 만나기, 말놀이 경험하기 - 말놀이의 특징과 아이들과 어른에게 모두 좋은 말놀이를 함께 경험 4. 도서명: 채록 각편으로 만나기	최순연	-진행: 줌 강의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5/20(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느끼고(2) 2. 형식: 강좌 + 체험 3. 강의 내용: 말놀이가 나오는 그림책 만나기 4. 도서명: <모모모모>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새는 새는 나무 자고>	최순연	-진행: 줌 강의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6/3(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말하고(1) 2. 형식: 강의+체험 3. 강의 내용: 옛날 이야기의 세계 만나기, 옛날이야기 경험하기-옛날이야기의 특징과 아이들과 어른에게 모두 좋은 옛날이야기 소개 4. 채록 각편으로 만나기	최순연	-진행: 줌 강의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6/17(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말하고(2) 2. 형식: 체험 3. 강의내용: 옛날이야기 재화본 만나기 4. 도서명: <여우누이> <해님달님>	최순연	-강사: 최순연 -진행: 줌 강의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일시	내용	강사	비고
7/1(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보고 쓰고 그리고(1) 2. 형식: 체험 3. 강의 내용: 아름다운 그림, 문장을 보고 읽고 쓰고, 그려보면서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4. 도서명: <오소리네 집 꽃밭> <대추 한알> <빼빼기> <나의 사직동>	김혜정	- 진행: 줌 -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7/15(목) 13:30~ 15:30	1.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보고 쓰고 그리고(2) 2. 형식: 체험 3. 강의 내용: 아름다운 그림, 문장을 보고 읽고 쓰고, 그려보면서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4. 도서명: <나의 엄마> <우리가 사는 한옥> <비빔밥 꽃 피었다> <팔빙수의 전설>	김혜정	- 진행: 줌 - 대상: 운영자 및 활동가
8/12, 9/9(목) 2차 14:30~ 15:30	1. 은작사 콘텐츠 개발 워크숍 1 2. 형식: 워크숍 3. 내용: (1) 그림책 하브루타 토론 1 (2) 그림책 하브루타 토론 2 4. 도서명: <감기걸린 물고기> <탈무드>	김영임 (어린이도서 연구회)	- 진행: 줌 - 대상: 도서관 운영자
10/14(목) 14:30~ 15:30	1. 은작사 콘텐츠 개발 워크숍 2 2. 형식: 워크숍 3. 내용: 그림책 필사 4. 도서명: <민들레는 민들레>	송지연 (동네북 작은 도서관)	- 진행: 줌 - 대상: 도서관 운영자
10/14(목) 14:30~ 15:30	1. 은작사 콘텐츠 개발 워크숍 3 2. 형식: 워크숍 3. 내용: 그림책 필사 4. 도서명: <민들레는 민들레>	김영숙 (다니엘 작은도서관)	- 진행: 줌 - 대상: 도서관 운영자
10/7(목) 13:30~ 15:30	1. 운영자 &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 2. 형식: 강의 & 체험 3. 내용: 기후위기와 커피박 체험	오현숙	- 장소: 줌 - 대상: 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웹자보 ▶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

식물 하나로 기분이 바뀌는 하루

커피찌꺼기 활용 화분만들기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힐링 화분 만들기
(화분 만들기 & 심어보기)

일정 | 2021.10.7(목) 오후 1:30~3:30
신청 | 은작사 카톡 (9/25~10/2)
진행 | 줌
재료 수령 |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02-382-3959) *일정 후후 공지

작은도서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도서관 콘텐츠 개발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이야기

2021년 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교육

말하고 말놀이의 세계 만나기
5/6(목), 5/20(목) 오후 1시30분~3시30분
말놀이의 특징과 아이들과 어른에게 모두 좋은 말놀이를 함께 경험

읽고 옛날이야기의 세계 만나기
6/3(목), 6/17(목) 오후 1시30분~3시30분
옛날이야기 재화본 만들기 & 나의 옛이야기 만들어 보기

쓰고 아름다운 그림, 문장의 만남과 이야기 써보기
7/1(목), 7/15(목) 오후 1시30분~3시30분
그림책을 읽고 느끼고 나누면서 작은 추억들 기립어 내기

강의 방식: ZOOM 진행

문의 010-8161-5172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

2. 진행 후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모임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거나 순환전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초기 계획은 도서관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확대하고자 기획하였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의 열악한 환경으로 모든 도서관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상황에 맞는 도서관별 콘텐츠 개발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경험해 본 것은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에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은작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확신과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운영자 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었다.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1) 작은도서관 운영자 & 활동가

- 혼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네트워크 강화
-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의 장 마련
- 작은도서관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도서관 자원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2) 지역주민

-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
-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이후 앞으로의 계획

-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학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활동가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역에 홍보 예정이며, 운영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교육을 통해 활동가 스스로 보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모임으로 만들어 활동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의 기회를 가져볼 예정이며, 작은도서관들의 교류 장을 점차 넓혀갈 것이다.
- ‘그림책, 문학으로 만나다.’ 순환전시를 활용하여 좋은 문학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에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자치구에 요구하는 등 작은도서관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고자 한다.
-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탐방 코스를 만들고 탐방 프로그램이나 작은도서관 연합 행사를 기획해 보고자 한다.
- 새롭게 개관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운영 교육을 개발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도서관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화하고자 한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 '스스로'의 의미는 작은도서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고립될 수 있는데 함께 배우며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있었고,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 관내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려던 시간이었습니다.
- 작은도서관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 교류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해서 보람 되었던 날들이 되었습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개발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자가 실



제로 운영, 체험해 본 것에 '스스로 아카데미'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운영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스스로'는 비대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시대인 지금에 각자가 스스로 분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어 퇴보만이 있는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많은 발전을 하는 지금이 스스로 알아가고 배우는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노력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그림책으로 하나된 만남

1. 소개

구리시는 작은도서관협회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에 구리작은도서관협회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 협의회 이름으로 진행되는 첫 사업인 셈이다. 구리시작은도서관협회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5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신규 도서관들이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새내기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서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뭔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서, 스스로 아카데미의 공부 주제를 그림책으로 정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1차시에서 3차시까지의 그림책 연구가 황진희 선생님의 강의를 줌으로 진행했다. 5월 27일 첫 강의에서 읽어주신 <내안의 나무/코로나 루켄>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몽클하게 해 주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그림을 참가자들에게 발표하게 했는데, 그림책이 주는 감동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감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듯했다. 두 시간 수업하는 동안 주옥같은 그림책 7권을 들으면서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읽어주는 하는데 그림책을 듣는 경험은 별로 없었다. 황진희 선생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한 마음이 밀려드는 듯했다. 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저 그림책에 푹 빠져있다 보니 헤어질 시간이었다.

6월 10일 황진희 선생님의 두 번째 그림책 시간에는 어린이와 책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다. 일본에 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도서관이 모험의 장소가 되어도 좋고, 숲속이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어린이의 본질을 찾아주고 어린이가 실컷 놀다가 책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어린이의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고, 몸의 감각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었다. 주옥같은 많은 경험들은 나누어 주었지만, 역시나 다양한 그림책들을 읽어주며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어주려고 빠르게 나누는 말 속에서 우리들은 뭔가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2021 구리시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5/27	그림책의 역할과 즐기는 방법 1	강사: 황진희 장소: Zoom (9:30 ~ 11:00)
6/10	그림책의 역할과 즐기는 방법 2	강사: 황진희 장소: Zoom (10:00 ~ 11:30)
6/24	그림책의 역할과 즐기는 방법 3	강사: 황진희 장소: 예기동화도서관 (10:00 ~ 12:00)
7/1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강사: 안선화 장소: 풍우농작도서관 (10:00 ~ 15:00)
8/24	춤추는 그림책(그림책 활동)	강사: 지연숙 장소: 채운농장 (11:00 ~ 16:00)

주최: 구리시작은도서관협회 주관: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



그림책 세 번째 강의에서는 어린이들의 고유성, 본질을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의 존재, 각자각자 고유한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책을 듣는 아이가 주인이다. 듣는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읽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자들 중에 어린 시절 그림책을 읽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좋은 그림책을 소개받고 싶은 욕구들이 많았고, 스무 권 정도의 좋은 그림책들을 소개 받았다. 각 도서관에서는 그 그림책들을 구입해서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겠다고 했다. 세 번의 만남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정과 열의를 다해 강의해주신 황진희 선생님의 에너지를 받아 우리들도 그림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림책 네 번째 시간 또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작은도서관으로서는 규모가 큰 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 진행했다.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만드는 팝업북으로 만드는 ‘보는책 노는책 만드는책’이라는 제목으로 팝업놀이터 대표 안선화 선생님의 강의를 있었다. 참가자들은 그림책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자기만의 그림책을 창작해내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팝업 그림책을 전시하고 돌아가면서 감상하는 시간도 할 이야기가 풍풍 솟아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그림책 수업 다섯 번째도 또한 놀라운 시간이었다. ‘몸으로 읽는 그림책’ 시간이었는데, 수동의 작은 농원에 가서 자연과 함께 춤을 추면서 힐링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운치 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실내에서 커뮤니티 힐링 춤을 추고,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한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으로 읽는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우리들은 낯설었지만, 뭔가 내 안의 나무가 자라나고 꽃피워지는 느낌이었다.



2. 진행 후

그림책 여섯 번째 모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다섯 번의 그림책 강의가 끝나고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었다. 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 실무자들이 그림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스스로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스스로 아카데미가 스스로 그림책 읽기 동아리가 되는 순간이다. 그림책에 대한 열정이 다섯 번의 강의로 다시 불타올랐다. 이제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그림책과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스스로 아카데미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 스스로 아카데미는 그림책이다. 다채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스스로 아카데미는 우리의 힘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하고 나면, 스스로 힘이 생긴다.
- 스스로 아카데미는 만남이다. 스스로 아카데미 덕분에 우리는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모당공원 작은도서관 외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시즌2

‘책으로 세상을 읽다, 나를 보다’

1. 소개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도서관들은 고양시, 파주, 부천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사립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메이커스 페이스형 작은도서관, 평화도서관 등 다양한 운영형태의 도서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네트워크하고 있으며 단체 회원인 고양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26개 관의 도서관이 협의회를 이루고 매달 정기회를 통해 작은도서관 간의 교류 및 정보 교환,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 및 도서관 학교, 작은도서관 멘토링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은 도서관 운영에 치어 변화하는 사회를 읽어내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는 하지만, 실무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어 집중하여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가 문학을 통해 시대를 해석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들여다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공동으로 읽고 비평가나 인문학자의 깊이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후 도서관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시즌2 ‘책으로 세상을 읽다, 나를 보다’ 구성

하나. 난민문학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읽다

- 지나 노 지나(이란두 글 | 우리학교)를 읽고 이완(아시아인권연대 활동가)의 해설을 통해 ‘문화다양성’ 이야기 나눔
- ‘난민’은 왜 생겨나는 것인가? ‘혐오하는 세상’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 ‘난민문학’을 함께 읽고 난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대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음

둘. 고전문학을 통해 시대를 읽다

- 마담 보바리 (귀스타브 플로베르, 진인혜 역 | 을유문화사) 읽고 이권우(도서평론가)의 해설을 통해 ‘문학을 통한 시대읽기’ 이야기 나누기
- ‘문학은 시대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고전문학’을 함께 읽고 문학을 통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음

셋. 시대문학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읽다

- 광장/구운몽 (최인훈 | 문학과지성사)을 읽고 김경운(인문학자)의 해설을 통해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음

넷. 작은도서관에서 평화를 보다

- 책도둑 (마커스 주삭 | 정역목웁김 | 문학동네) / 책도둑 (영화:브라이언 퍼시벌 감독)
- 코로나19 상황 전후, 다시 ‘평화’를 생각해본다.
- 홀로코스트는 사회 여러계층 특히 소외계층의 학살이 여러계층 특히 소외계층의 학살이 주류를 이루었음.
- ‘평화를 품은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영화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들여다 봄

다섯. 평화를 통해 나를 보다.

- 큰 평화라는 나무 아래 작은 열매들인 인권, 환경, 생명, 생태, 평화 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경험을 해 봄
- 책 보따리는 공동체 놀이를 통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
- 워크숍을 통해 평화 책보따리의 의미를 알고 이후 각 도서관에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

일시	내용	강사	비고
4/12 (월)	10시-13시 (3시간)	난민문학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읽다	강사 : 이완 (아시아인권연대 활동가, 컬럼리스트) 업무담당 : 박미숙 (강사섭외, 당일진행, 강사서류)
4/19 (월)	10시-13시 (3시간)	고전문학을 통해 시대를 읽다	강사 : 이권우 (도서평론가) 업무담당 : 신현미 (강사섭외, 당일진행, 강사서류)
4/22 (목)	10시- 13시 (3시간)	시대문학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읽다	강사 : 김경윤 (인문학자, 작가) 업무담당 : 김은미 (강사섭외, 당일진행, 강사서류)
4/25 (일)	19시-21시 (3시간)	책보따리속 평화이야기	사업담당 : 이병무 (강사섭외, 당일진행, 강사서류) 강사 : 황수경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관장)
4/26 (월)	10시-13시 (3시간)	영화와 책으로 만나는 제노사이드	강사 : 명연파 (평화를품은집 대표) 사업담당 : 박미숙 (강사섭외, 당일진행, 강사서류)
		총괄 : 김정희	실무 : 백정희



2. 진행 후

-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의 도서관을 잊고 우리가 즐겼던 순간이었어요. 함께 여유 있게 떠나는 여행도 꼭 가고 싶네요.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백정희)
- 행사기획이 아닌 청중으로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으로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기도 하였고요.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김연희)
-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정을 마친 후 이 '배운 것, 알게 된 것'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적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배우게 된 것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루터기작은도서관 이병무)
- 작은도서관들끼리 뭔가 모여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회의로만 만나다가 뭔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책놀이터 박미숙)
- 무려 벽돌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맛이 좋았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함께 만나 평화 책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책 활동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내는 방식이 인상 깊었고, 도서관에서도 접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상공원작은도서관 김은미)
- 1인 운영으로 늘 혼자라고 생각했었던 시간에서, 나같은 "우리"가 있어서 힘이 되었고, 앞으로 도 늘 도움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전을 읽는 것에 대한 웬지 모를 두려움과 시작하기 전에 포기했었던 시간에서 그래서 도전할 용기가 생겼던 시간이었다. 지루하게, 힘들게? 아니, 아주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그래서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작은도서관 심은경)
- 공간을 지키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주최가 되어야 했던 입장에서. 잠시라도 참여자로, 배우는

입장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쉽고 힘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함께 하고 있다는 동지 의식만으로도 격려였고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조차도 수고한 분들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이 물론 큼니다.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나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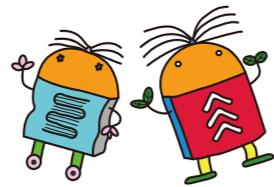
- 전 이 사업이 운영자들을 위한 사업이라 맘에 들어야 항상 이용자를 위해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 스스로 우리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아쉬운 건 피치 못해 일정이 겹쳐 함께하지 못할 때 아쉬워요. 다음 사업은 여행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후울쩍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 황수경)
- 도서관을 운영하며 혼자 동분서주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비워지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아카데미는 나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구요. 내 안에 관념화되고 정리되지 못했던 문화다양성, 시대문학,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들을 정리하며 우리도서관에 어떻게 펼치고 나눌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정희)

3. 참여자들의 이야기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백정희)
-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을 시간.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김연희)
- 스스로 아카데미는 '나의 세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사님들, 다른 도서관 운영자, 활동가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좁디좁은 나의 세계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루터기작은도서관 이병무)
- 스스로 아카데미는 빈 공간에 뭔가 차곡차곡 채워 넣는 느낌을 주는, 뿌듯하고 배부른 시간이었다. (마상공원작은도서관 김은미)
- 스스로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기회’를 만들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들 바쁜 탓에 만나

기 어려운 작은도서관 식구들을 연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배우는 기회도 된다.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박미숙)

- 늘 누군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여주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즐기며, 배불리 먹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해도 스스로 체크할 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맘 편했던 시간이었다. (고양작은도서관 심은경)
- 스스로 아카데미는 충전입니다. 도서관 사람들을 만나고 책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충전하고 다시 기운 내서 한 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정희)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서천
여우네도서관
의**

희망을 품은 봄바람같이

1. 소개

따뜻한 봄내음이 흠으로부터 전해지던 3월초 어찌다 둘, 셋이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때라 그저 사람이 반가웠고, 만나니 자연스레 하던 일, 머무르는 곳, 그리고 만나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주 만나볼까 하다가, 스스로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니 몇 번 더 만나면 좋겠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을 엿봐도 재미있겠다 싶어 답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뭘 하면 좋을지 설레었고, 갈급했던 강의를 상상하고, 구체적인 책을 함께 선정하면서부터 이미 1년이 풍성해졌습니다.

서천의 작은도서관은 8~9곳, 그중 지역아동센터, 교회, 아파트 그리고 기타 기관 부속 빼고는 4~5곳 정도, 그중 공립 2곳, 사립 2~3곳. 참 작은 규모와 지역입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간간히 전해오던 도서관들의 소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둘 모이다 보면 조금 더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골의 작은도서관 존립과 상생을 위해 군청에 운영비 관련 제안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장밋빛 설레임도 끼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색깔이 다양한 서천의 작은도서관의 이야기 모아보기입니다. 여우네 고개에 터를 마련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잘 읽고, 잘 노는 13살된 여우네도서관, 시간이 멈춘 마을 판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긴긴 시간을 모으는 9년된 판교도토리도서관, 생태적인 순환을 도서관을 통해 나누겠다는 부엉바위옆 5년된 부엉이마실간도서관, 마을공동체 속

도서관의 기능을 품고 만들어진 3년차 물벼들마을도서관, 그리고 저마다의 만들어진 배경이 재밌는 도서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현황공유 모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폭을 좁혀 긴밀한 이야기, 주제 중심 대화를 위해 책을 선정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교육」 두 권을 함께 읽고 나누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놓치지 않아야 할 주제들이고, 분량이 적지만 함량 있는 내용이라 밑줄 그으며 함께 했습니다. 셋째로, 도서관의 고유의 기능,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자들의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고병헌 교수와 줌으로 만나고, '문화다양성' 내용으로 인권센터 '들' 강사를 귀하게 초대해 우리 속의 인권을 점검하고 무장했습니다. 이어 '여주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김동현 활동가와 마을청년을 만나 실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특강으로는 시초에 사는 영화감독 양수환 청년을 초대해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도서관 활성화라는 주제로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 라이브방 만들기, 영상촬영 기술 등을 익혔습니다.



2. 진행 후

작은 동네, 작은도서관, 코로나로 더 작은 규모로 모였지만 상상의 날개는 넓고 높았습니다. 규모 있는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이고 모임자체가 뜸하던 시간이라 모이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도서관인데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 도서관이고, 누군지는 알고는 있으나 아는 것이 없는 도서관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네트워크 소통방에서 간간히 전해오던 도서관의 콘텐츠와 현안들이 모이니 더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등은 작지만 큰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걸음을 힘차게 했습니다.

부영이마실간도서관에서 유기견 돕기 작은바자회를 열며 산골동네의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고 여우네도서관에서 장터를 열었습니다. 행사의 취지와 현안 공유에 따른 남은 물건공유, 기부 연대와 참여 등 작은 규모지만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 훨씬 재밌고, 신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명이 읽으면 열권의 힘을 얻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부단하고, 힘든 길인지 나눠보니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온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품만큼 도서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이

니 조금 더 넓은 도서관이 보였습니다.

늑늑한 마음들을 햇빛에 놓아두기만 해도 뽕뽕해 짐을, 서로가 햇빛임을 느꼈습니다.

‘삶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빗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코로나 상황속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모임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 모이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모임 규제 속 모이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작은 동네인데 작은 규모의 사업이 인정되는 스스로 아카데미가 참 좋았습니다. 작은 모임 꾸리는데 힘을 보태준 시작을 밀친 삼아 새해에는 분기별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새해 새 사업 기획, 시골문화 담는 연대행사, 운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 책 소식 등을 나누고, 상근자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봄꽃을 즐기고, 가을 별에 책을 읽고 싶습니다.

논리의 사업이 아닌 상상력으로 도서관 콘텐츠를 기획하는 시간을 나누고 채우고 싶습니다. 작은 규모의 연대였지만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방문해 함께 걸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자의 삶터가 중심이었고 중심을 벗어나기는 그동안 쉽지 않아서 우리는 종종 소식만 전하고 잘 만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건너가볼까 하다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덜컥 모두에게 소식을 전해서 한 번 만나볼까요? 번개를 치고 그날밤 모여서 스스로 아카데미를 궁리했습니다. 모양이 다른 것끼리 만나면 또 무엇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자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스스로 아카데미 과정에서 처음 고민을 털어놓던 운영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처럼 생각돼서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뜻을 모아보려고 했지만 누구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건가하는 생각이 들며 잠깐 기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고. 필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에 옮기면 그 좋은 기운은 같은 방향을 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품은 봄바람이 된다는 것

을요.

여우네도서관 이미정 ▶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시대에 흐름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인권, 민주시민)

여우네도서관 김명숙 ▶ 스스로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강좌를 통해서 ‘민주시민, 일상 정치의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판단과 선택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우네도서관 이지은 ▶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이었다. 사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물벼들마을도서관 고영미 ▶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함께 만들게 된 작은도서관은 시골지역의 책방이자 사랑방으로 소중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하였으나 운영을 어떻게 해야될지, 운영자는 누가 해야될지.. 도서관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할 것들이 많았지요. 그러던 중 <스스로 아카데미>지원사업을 통해 서천지역 작은도서관 운영·관계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 자체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종기모여 삶을 나누고, 서로의 도서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마다 다양한 도서관 소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같은 책을 읽고 강연을 함께 들으면서 정말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어 지역안에 녹아들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처럼 지속해서 연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심히 모아진다면 힘들지만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벼들마을도서관 심향보 ▶ 저에게 도서관은 마을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한 발 떨어져서 도서관을 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판교도토리작은도서관 최현주 ▶ 잘 지켜내고픈 우리 마을의 공간임에도 벽차고 외로워서 한동안 갈길을 모르게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만나고 생각을 나누는 중에 모자라더라도 버팀목이 되어보자는 용기와 다짐이 생겨났고 더없이 고마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도서관을 잠시 밀어두었는데 모이면서 도토리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책이 들어왔습니다. 고민과 인식을 넘어 실천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선물했습니다. 가는 길이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서로 배울 수 있으니 가끔씩이라도 이런 기회가 또 오길 바랍니다. 가끔이지만 비타민과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조금 더 발 폭을 넓힐 수 있는 22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영이마실간도서관 정경희 ▶ 지금의 시간들이 모여 내 삶과 피를 만든다면 스스로 아카데미는 고향 같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은 마당이고, 소는 자리입니다. 도서관 운영자로서의 자리, 그것을 들고 마당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킵니다. 장소는 지리적 실체이면서 의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상징성이 부여된 곳을 말합니다.

귀농 8년차, 서천에서, 도서관 그리고 사람, 아이들...그래서 도서관 다위집을 마당에서 배웠습니다. 스스로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면역의 핵심은 ‘상호의존’임을 모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영이마실간도서관 민순규 ▶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마련된 시간들은 자주 만날 수 없던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여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람이 귀한 작은 마을에 터를 잡은 여러 개의 도서관들이 지금껏 거처온 고민과 어려움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자라나던 시절은 지나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은 도서관과, 그 곳을 지키는 여러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들.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으며 도서관 활동가로서 가져야 하는 겸손함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작은 지역에 터잡은 도서관들이 가진 특별한 고민을 더 깊게 나눌 수 있었기에 이 아카데미가 더욱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부엉이마실간도서관 **참깨** ▶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일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소망과 의도가 모여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돌아보다, 바라보다, 내다보다

1. 소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는 개관한지 20년, 15년, 10년 된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품은 도서관부터 신생도서관까지 작은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살아내기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인천지부 소속 도서관들의 무거워진 마음들이 스스로 아카데미의 '고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아카이빙, 아키비스트, 기록이라는 멋진 단어들의 미학적인 조합 말고, 작은도서관들이 멋지게 살아낸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살아낼 힘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의 강점을 살려 마을의 사랑방이자 마을의 쉼터, 마을의 문화를 저장하는 작은도서관의 생생한 기록들로 우리만의 자긍심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인천지부 소속 도서관들과 조금 더 품을 넓혀 인천지역 작은도서관중 8개도서관

- 골목도서관
- 꿈나무도서관
-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마중물도서관
- 와글와글도서관
- 자람도서관
- 짱둥이도서관
- 콩세알도서관

22명의 마음들이 모여 도서관과 도서관을 둘러싼 우리 마을의 기록을 통해 도서관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다보는 인천지부 스스로 아카데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천지부 스스로 아카데미 <도서관을 돌아보다 바라보다 내다보다>는 코로나로, 또 여러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부 소속 도서관들의 고민들을 제대로 된 기록의 힘이 향하는 건강한 방향성을 통해 앞으로 한걸음을 내딛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마을에서 도서관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록을 통한 가치발견을 통해 우리 도서관만의 씨앗들을 도서관을 함께 일구어 온 사람들과 살펴보고 마을문화의 저장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들을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의 익숙한 일상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고, 도서관을 일구는 사람들이 마을문화와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일군 마을역사의 주체로서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아카데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록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록을 통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남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을 이루는 유형, 무형의 환경 / 역사 / 문화 / 전통 / 사람...

기억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을 넘어 아카이빙을 통한 도서관 성찰하기, 가치찾기

미래를 살아낼 힘을 다시 모으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10강의 수업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차-구분	내용	강사
도서관-마을커뮤니티	도서관(마을)커뮤니티와 인디디 마을, 도서관 그리고 문화	인행은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서포터즈	서포터즈 마을 찾기	김라희 (서포터즈)
도서관-마을커뮤니티 워크숍	도서관(마을)커뮤니티 워크숍(2차) 나눔의 시간	인행은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도서관을 돌아보다, 바라보다, 내다보다
웹자보▶

강의 일정

일시	제 목	내 용	강 사
1 6.10.(목) 20:00~22:00	도서관, 마을 아카이빙과 만나다	-마을 도서관의 마을 아카이빙 도전 : '메이드 인 인천' 전시를 통해 배우는 마을 아카이빙 -교육생 소개 시간	안정윤 (국립민속 박물관 학예연구사)
2 6.17.(목) 20:00~22:00	마을, 도서관 그리고 민속(문화)	-마을 민속(문화)과 마을(도서관)조사의 이해 -우리 마을 민속의 특징 발표	
3 6.24.(목) 20:00~22:00	구술조사의 이해	-구술사와 구술조사에 대한 이해 -우리 마을의 가장 절박한 구술사 대상 발표	
4 7.8.(목) 20:00~22:00	현지조사 방법	-현지조사의 실제 방법 -우리 마을 현지조사 주제 발표	
5 7.15.(목) 20:00~22:00	아카이빙 활용과 사례	-기록물소장품의 수집관리활용의 실제 -작은도서관의 기록물소장품 현황 발표	
6 7.22.(목) 20:00~22:00	마을 문화의 저장소 마을도서관박물관	-국내외 사례, 마을도서관박물관의 역할 -내가 꿈꾸는 작은도서관의 비전 발표	
7 7.29.(목) 20:00~22:00	사진으로 도서관- 마을 기록하기1	-사진으로 마음 읽기	김지하 (사진작가)
8 8.5.(목) 20:00~22:00	사진으로 도서관- 마을 기록하기2	-사진 촬영의 실제 방법	
9 8.21.(토) 14:00~18:00	도서관-마을 아카이빙 워크숍1	-마을과 도서관 문화와 구술 조사 발표(1차) -나눔의 시간(대면)	안정윤 (국립민속 박물관 학예연구사)
10 8.28.(토) 14:00~18:00	도서관-마을 아카이빙 워크숍2	-마을과 도서관 문화 구술 조사 발표(2차) -나눔의 시간(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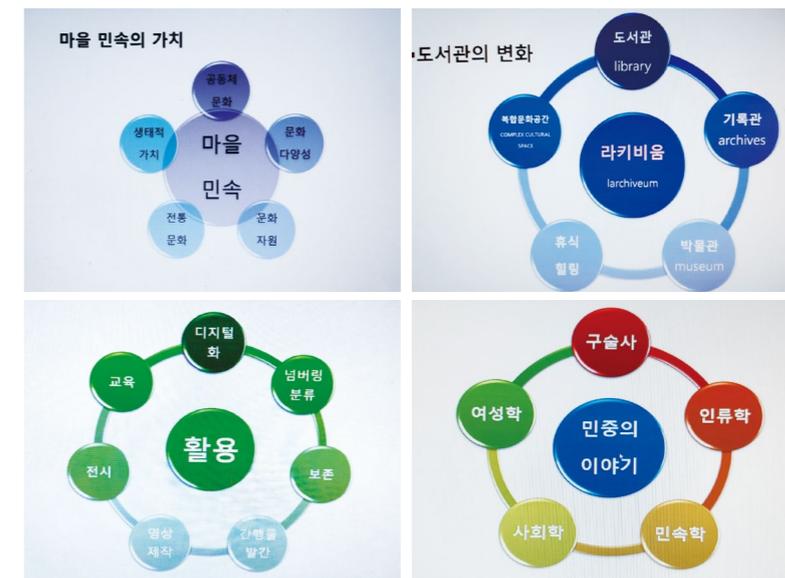
2. 진행 후

국립민속박물관 안정윤 학예사님과 함께한 도서관-마을 아카이빙

- 도서관, 마을아카이빙과 만나다
- 마을, 도서관 그리고 문화
- 구술조사의 이해
- 아카이빙 활용과 사례
- 마을문화의 저장소-도서관/박물관
- 도서관(마을)문화와 구술조사발표(워크숍 / 2차시)
- 현장탐방-부천시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안정윤 학예사님과 함께 진행한 7강의 강의를 통해

도서관(마을)아카이빙의 핵심은 내가 사는 마을(도서관), 내가 일하는 지역에 대한 '자극심 찾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도서관(마을)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마을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서관과 내가 속한 마을에 어떤 콘텐츠(가치)가 있고, 우리는 어떤 콘텐츠(가치)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도서관(마을)을 돌아보며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이 만든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문화의 힘을, 도서관(마을)의 문화를 창조하고, 마을마다 넘치는 개성들을 담아내는 문화 다양성의 장이며, 도서관마다 가지는 문화독자성과 이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전승하는 공간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 도서관(마을)의 가치는 도서관만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통해 의미를 얻고, 공감과 나눔을 통해 정체성으로 거듭 날 수 있음을 내가 속한 도서관(마을)을 조사하며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마을 아카이빙 강의 과제1 -마을의 기본을 알다

2021.07.15 평동어린이도서관 이소은 (관장)

□ 마을 이름: 청학동 (마을넷) - 전통이름찾기
□ 마을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인천의 자랑거리

- 인천은 허브다.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이 열리는 곳)
- 인천은 세계로 이어진다.

□ 마을의 자랑거리

- 살아있는 골목.
- 낮은 건물. 하늘과 함께 산을 볼 수 있는 조망.

작은도서관 스스로 마을 아카이빙 강의 과제1 -마을의 기본을 알다

2021.07.20 꿈나무도서관 하태선

□ 마을 이름: 만수동

□ 萬壽洞은 본래 仁川府 烏洞面과 南村面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새말, 구룡골, 산말말, 당땡이, 장승배기, 새골, 비리고개, 돌골, 쇠판을 병합하여 만수리라 해서 부천군 남동면에 편입되었는데 1940년 4월 1일 제2차 仁川府域 확장 때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본식으로 萬壽町이라고 하다가 1946년 1월 1일부터 洞名 변경에 의해 萬壽洞이 되었다.

만수2동은 옛날 중국으로부터 무역선이 포구에 드나들 때 한양과 수산동 포구를 잇는 주막거리로 김촌마을, 하촌마을 등 씨족들이 웅기중기 모여 살던 곳이었다.

□ 마을 위치: 만수3동과 만수4동, 부평구 일신동

□ 남동구의 자랑거리

- 인천시청, 시교육청.
- 6,300여개의 공장이 쉴없이 가동되는 남동공단
- 인천 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축제), 생태누리길
- 인천종합문화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길병원, 문학경기장
- 사통발달 : 수도권1호선, 인천1, 2호선, 영동,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사진작가 김지하 선생님과 함께한 사진으로 도서관(마을)기록하기

- 사진으로 마음읽기
- 사진촬영의 실제방법

김지하 사진작가님과 함께한 2강을 통해

- 내가 속한 마을, 도서관에서 기록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프레임 안에 담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프레임 넘어 담아내야 할 마을과 도서관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거대담론을 넘어 일상, 즉 평범함이 가지는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가장 기초적이고 풍부한 예술 범주가 바로 일상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숙해 보이지만 항상 놀랍고 새로운 도서관과 사람들의 힘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탐방

- 부천시립박물관 탐방으로

마을기록과 친숙해지기

- 부천시립박물관 ‘내가 부천을 기억하는 방법’ 탐방을 통해 그동안 10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마을아카이빙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며 앞으로 도서관(마을)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열매맺기 - 와글와글도서관 : 남동구 마을축제를 빛낸 남동구 옛사진展 >



3. 참여자들의 이야기

- 다양각색 다른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하나의 주제로 함께 배워가는 학습터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배움터
- 작은도서관 벗들과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허물없이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
-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행복마당

“7월 안정윤 학예사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게 되어 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남동구 역사를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주안염전, 남동염전, 소래염전이 만들어졌고 염전들이 사양길을 걸으며 염전터에 수출5, 6공단과 남동공단이 만들어지고 소래와 수원을 잇던 수인선 협궤열차가 소금을 실어나르던 자기 역할이 끝나면서 운영을 하지 않게 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올해 배운 것들을 축제와 연결하기 위해 마을 사진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만수3지구 택지개발 이전의 사진을 모으려고 했지만 짧은 시간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남동초등학교와 어르신 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원에 설치해 전시 내내 동네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주셨고 덕분에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을 열심히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의 사업이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해주었고 마을축제를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와글와글도서관 구순례 관장님 글중에서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스스로’ 채워나가는 진정한 아카데미

1. 소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법을 배우고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이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 속에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며 스스로 아카데미 또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단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스스로 아카데미 모임은 세종 범지기마을10단지작은도서관, 푸른작은도서관, 달빛숲작은도서관, 성남 산들마을푸른숲작은도서관,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청주 산남푸르지오작은도서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전 산남부영작은도서관 관장), 울산 아릅드리작은도서관, 울산 푸른작은도서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카데미 기획 배경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의제3항에 따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공립과 사립작은도서관의 다양한 관종 중 법으로 설치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이로 인해 매년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운영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법에 없고,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과 관계되는 수많은 갈등으로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활동가 대부분이 아파트 관련 법률이나 관계 규칙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아파트 작

은도서관의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운영의 질적 성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및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가 없어 각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지닌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해법을 찾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고 비정기적인 포럼이나 교육은 단발성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주체적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관련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더불어 아파트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커리큘럼

- 효과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퍼실리테이션(팁빌딩)을 통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현장사례 공유 워크숍
- 아파트 운영의 이해와 관련법, 관리규약 등의 이해
- 법학 개론, 도서관법의 이해, 공동주택 관리법의 이해
-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쟁점 사항 이해하기
- 도서관 관련법과 타 법률과 비교 및 법률간 관계도 이해하기
- 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이해하기
-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개정안 만들어 보기

일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강사 혹은 진행자
4.13.(화) 10시~12시	1. 인문학 –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2. 강좌(작가와와의 만남) 3. '스스로' 아카데미를 여는 인문학 강좌 4. 책 :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작가 김성우
05.11.(화) 20시~22시	1.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공유 워크숍 2. 워크숍(피살리테이션) 3. 내용 : 사례공유 및 스터디 중점사항 확인	NGF연구소 대표 박현미
05.25.(화) 10시~12시	1. 아파트 운영과 공동주택 관련법 2. 줌(비대면) : 강좌 3. 아파트 운영의 이해와 공동주택 관련법 이해	(주)총원종합관리 전문 정원제
06.08.(화) 10시~12시	1. 도서관법의 이해 2. 줌(비대면) : 강좌 3. 도서관 관련법 전반적인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06.22.(화) 10시~12시	1. 도서관 관련법과 타 법률간의 이해와 비교 2. 줌(비대면) : 강좌 3. 법의 종류와 구조 및 개념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07.06.(화) 10시~12시	1.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개정안 만들기 2. 줌(비대면) : 강좌 3. 개정안 작성법 및 유의점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07.20.(화) 10시~12시	1.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개정안 만들기 2. 좌담 3. 각자 맡은 부분 개정안 종합 정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진행자 : 박민주
09.16.(목) 10시~12시	1. 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의 이해 2. 줌(비대면) : 강좌 3.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 가이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10.26.(화) 10시~12시	1.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총평 2. 좌담 및 총평회 3. 사례별 적용법률 및 가이드라인 원고 제작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진행자 : 박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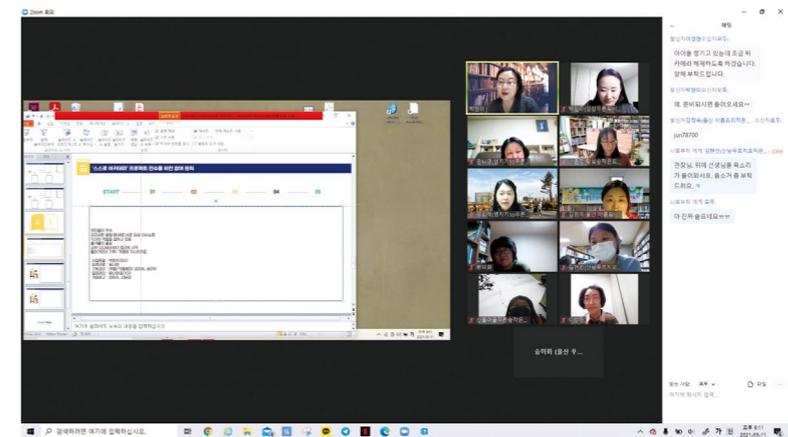
‘스스로’ 아카데미를 여는 첫 번째 강의는 인문학 강좌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김성우 작가의 ‘도서관, 이제는 새로운 리터러시를 상상할 때’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리터러시의 의미와 역할, 위기, 새로운 리터러시 허브로서 도서관과 리터러시 실천가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노력, 성장을 이야기했다.

‘스스로’ 아카데미 참석자는 생소했던 리터러시의 개념과 역할을 만나게 되었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도서관 속의 ‘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시간으로 NGF연구소 박현미 대표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탐색했다. 또 스스로 아카데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참여자의 참여원칙을 세우고 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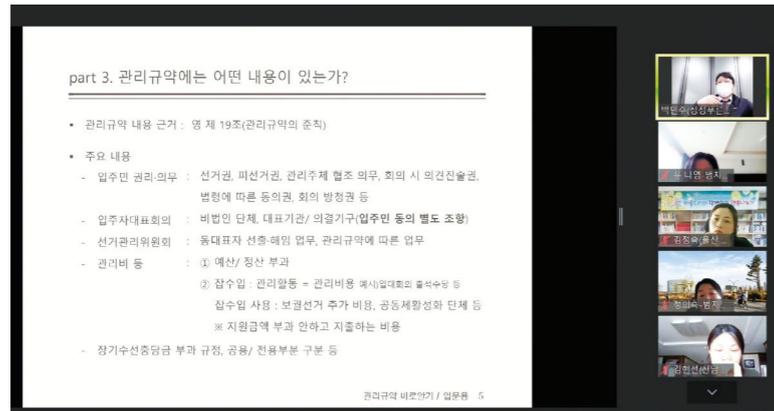
해당 강좌를 통해 참여자들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녹록지 않음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하였다. 이심전심, 아울러 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 운영의 이해와 공동주택 관련법에 관하여 (주)충원종합관리 전무이사 정원제 강사를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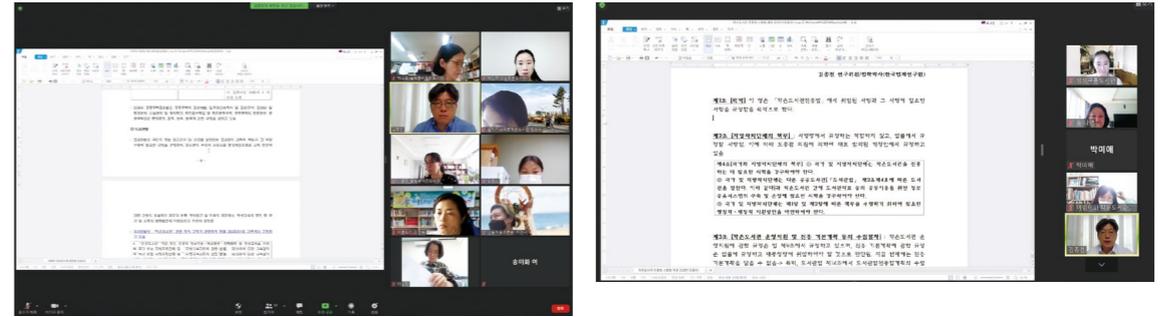
작은도서관 활동가에게 아파트 운영과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을 배운다는 것이 필요할까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해당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속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 기구와 조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도서관 교육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고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강의 주제를 듣게 되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네 번째 강의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박사와 함께 총 4회차로 법학 일반, 도서관법,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과 개정안 작성,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관련되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평소 궁금했던 법의 위계와 용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의응답들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해답을 얻는 시간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 중 발생하는 갈등 대부분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최종과제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정이 필요한 법조문을 찾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또한 강연이 아닌 좌담형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각 광역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성원끼리 스터디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공통적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운영을 저해하는 법조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았고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정리하였다.

2. 진행 후

-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제작하여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 지속적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한 법과 운영노하우 등을 함께 공부하며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의 성장을 돕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도록 함께 노력한다.
- 전국 아파트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소통채널 개설) 개설 및 확대 활동을 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의 네트워크 결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힘을 키워 영향력을 갖도록 한다.
- 추후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제작과 관련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스스로 아카데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소감

서은정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힘든 도서관법, 아파트관리법에 대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의숙

막연했던 법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열공!!!

이성현

평소에 알고 싶었던 작은도서관 관련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많아지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활동가들이 관련 법안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서

답답한 속이 뚫린 기분이고 세세한 정보까지 알게 돼서 작은도서관에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윤나영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다른 지역 비슷한 상황의 작은도서관들을 만날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층 내공이 단단해 지는 느낌이랄까요~^^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의 성격도 잘 알수 있었어요. 다음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박민주

작은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해 법의 체계와 이론을 알아야 하는데 배울곳이 딱히 없어서 답답했었어요. 이번 기회에 궁금한것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매듭을 푼 것 같아 정말 유익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교육 및 강좌들이 있지만 스스로 아카데미는 배울 사람! ‘우

리’도 스스로 정하고 배울 ‘무엇’도 스스로 기획하고 강사도 직접 섭외한다는 점에서 진짜 궁금한 것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들을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에 접근하게 해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공부를 지속 해나간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무슨 의미?

서은정

스스로 아카데미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알고자하는 분야나 주제로 말그대로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숙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안이나 해결법을 고민하여 ‘스스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성현

스스로 배워나가고 성장해가는 스테디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꾸준히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연서

누가 쥐어지는게 아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진정한 ‘아카데미’으로서, 빈시간으로 지나치지 않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나영

스스로 아카데미는 자발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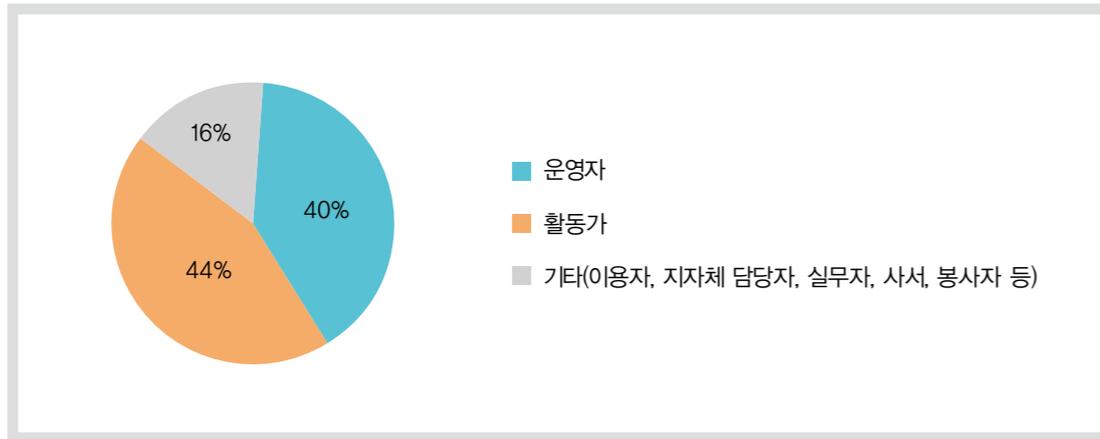
박민주

스스로 아카데미는 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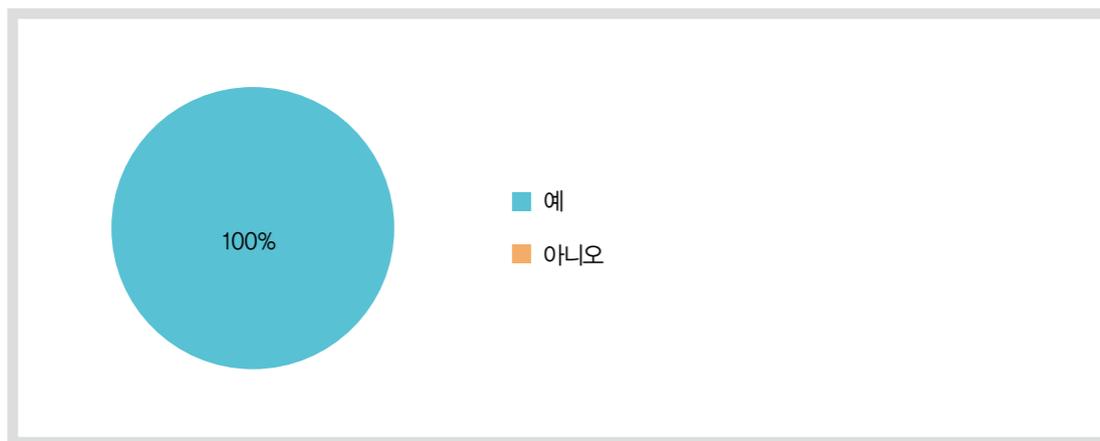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각 단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2.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이 만족스러우셨나요?



3.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러우셨나요?

- 여러 도서관과 네트워크해서 진행한 것
- 책과 관련된 정보나 활동
- 실질적 운영 방법과 활동 내용들
- 평소 알고 싶었던 법에 대한 용어 및 체계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 나의 발전

4. 어떤 점이 제일 불만족스러우셨나요?

- 코로나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
- 비대면으로 하다보니 서로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것
- 도서관 인력 부족으로 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던 점
-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안타까운 것
- 사업종료 후 원고작성과 사업정산마감이 필요하긴하나 일이 많아 힘든 것

5.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 강사 및 강의 내용에 큰 제약이 없어 진짜 배우고 싶은것을 가감없이 기획할 수 있는 것
- 작은도서관 운영에 스스로라는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것
-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듣고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는 재미
- 내 도서관이 속한 마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알게된 기회
- 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

6. 다음에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 문헌정보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사서관련 업무 교육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서 접목해서 할수있는 프로그램 기획
-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운영자 역량강화, 운영 컨설팅
- 온라인, 아카이빙, 글쓰기, 인문학, 아파트 관련법 교육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 기금 자료집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글쓴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발행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hanmail.net
홈페이지 smalllib.org

※ 이 책은 코팅되지 않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글쓴이나 발행처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전재하거나 sns·매체수록 등을 금합니다.